

< 대한민국,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

대한민국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4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개최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세계환경의 날은 1973년 이래로 매년 6월 5일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보호를 위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5년 세계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해당 협약을 위한 5번째 회기가 올해 11월 한국에서 개최된다.

경이로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제주는 한국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선도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2022년,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으로 자유로워지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UNEP 상임이사 Inger Andersen는 “플라스틱 오염이 없는 미래를 위한 제주의 노력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제주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행동을 취하고 지구를 보호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완섭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지구적 노력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와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선도국가로 자리 매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